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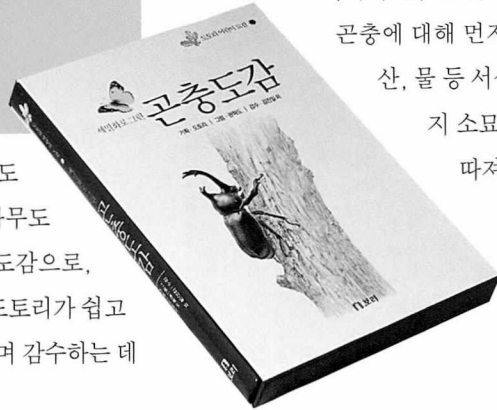
세밀한 붓끝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 토박이 곤충들

《세밀화로 그린 곤충도감》

지난해 4월에 나온 보리의 역작 《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에 이어 《세밀화로 그린 곤충도감》이 출간됐다. 《나무도감》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세밀화로 그린 최초의 곤충도감으로, 총 20여명에 이르는 전문 필진이 글을 쓰고 기획집단 도토리가 쉽고 편한 말로 다듬었으며, 전문가들이 서로 원고를 돌려보며 감수하는 데 총 6년이 걸린 대작이다.

한곳에 초점을 맞추는 사진과는 달리 세밀화는 초점을 여러 군데 두거나 옮겨다니며 자세히 관찰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해준다. 정성껏 그린 세밀화 한 장에는 사진 십수장의 정보가 담기고, 수채물감으로 그린 그림은 편안하고 따뜻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감수성을 쑥쑥 자라게 한다.

이 책은 우리 산과 들에 서식하는 총 137종의 곤충 모습을 231점의 세밀화에 담아냈다. 자연이 망가지지 않고 남아 있는 곳을 다니며 곤충을 찾고 발톱, 더듬이, 날개맥 같은 곳을 여러번 들여다보면서 그림 한 점 그리는데 보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곤충의 알과 애벌레, 번데기



도토리 편집부 · 김진일 외 글 · 권혁도 그림
보리/A4변형/328면/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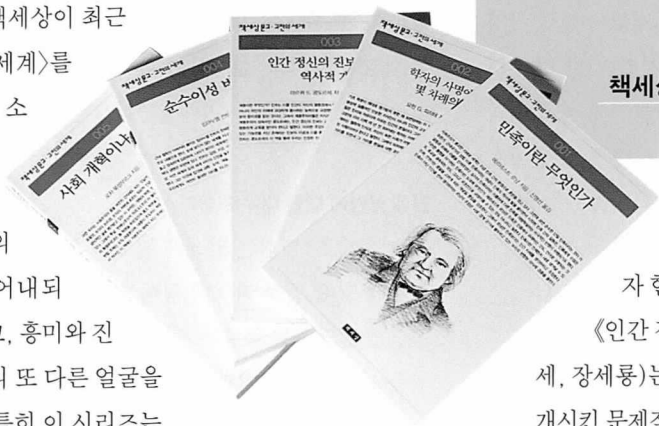
모습, 짝짓기하고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모두 현장포착해서 열심히 붓을 놀렸다.

책의 구성, 배치,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부는 곤충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을 모았다. 집, 들, 산, 물 등 서식지별로 곤충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묘하고 사람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따져본다. 2부는 하루살이목, 잠자리목, 바퀴목 등 총 17목의 곤충을 차례대로 실어 소개한다. 곤충 한종마다 자세한 풀이글과 세밀화를 실었다. 물론 실물크기다. 학자들의 전문지식과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에게서 구한 자료를 취합해 술술 읽히도록 우리말로 쉽게 풀어썼다. 이를테면 물방개는 잡아먹기도 해서 쌀방개로 부른다는 것, 땅강아지가 많이 다니는 곳은 팔고물처럼 흩이 부슬부슬해진다는 등 '재미있고 실감나는 도감'을 추구했다.

‘그림으로 찾아보기’를 펼치면 이 책에 실린 곤충이 전부 나온다. 우리글 읽을 줄만 알면 내가 찾는 종이 무슨 목이고, 몇 쪽에 있는지 단번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여러모로 이 책은 한국 도감출판의 큰장을 열어가고 있다. —강성민기자

‘그림으로 찾아보기’를 펼치면 이 책에 실린 곤충이 전부 나온다. 우리글 읽을 줄만 알면 내가 찾는 종이 무슨 목이고, 몇 쪽에 있는지 단번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여러모로 이 책은 한국 도감출판의 큰장을 열어가고 있다. —강성민기자

속도와 효용의 시대에 점점 인문학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2000년부터 <책세상 문고 · 우리시대>를 통해 인문학의 지적 도발을 부추겨온 책세상이 최근 <책세상 문고 · 고전의 세계>를 선보였다. 이 시리즈는 소장학자들이 주축이 돼 고전을 현대어로 쉽게 풀이해 소개한다. 고전의 고답적인 분위기는 덜어내되 그 가치와 무게는 지키고, 흥미와 진지함을 잃지 않는 고전의 또 다른 얼굴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 시리즈는 고전을 외면하는 독자와 인문학을 잇는 거물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리즈의 신호탄으로 먼저 다섯권이 나왔다.



책세상/B6변형/160면 내외/4900원 내외

《민족이란 무엇인가》(에르네스트 르낭, 신행선)는 공화주의자부터 민족주의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지자를 확보한 프랑스의 사상에 에르네스트 르낭이 1882년 소르본대에서 강연한 강연문이다. 이 책을 통해 르낭은 종족이론을 탈피한 근대적 의미의 민족이론을 수립하고 있다.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요한 G. 피히테, 서정혁)는 기초 학문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학자란 어떠한

현재라는 시간의 스펙트럼으로 고전의 빛 되살려

책세상 <책세상 문고 · 고전의 세계> 1차분 5권 펴내

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묻는다. 이 책에서 피히테는 학자는 현실 비판자이자 현실 변혁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마르퀴 드 콩도르세, 장세룡)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확신을 전개시킨 문제작이다. 이 책에서 콩도르세는 인간 정신의 진보를 제창하는 데, 이는 여성 평등, 노예 해방, 인간 해방과 맥이 닿아 있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비판적 탐구가 담겨 있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서문》(김석수)은 칸트의 철학적 정신이 체계적으로 요약된 글을 통해 진정한 ‘철학함’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냐》(로자 룩셈부르크, 송병헌)는 사회주의 문헌사상 가장 탁월하고 날카로운 글로 평가받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표작이다. 이 책에는 대중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진실한 사회주의를 향한 깊은 열망이 담겨 있다. —박옥순기자